

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주식의혹에 "공소시효 완료 재조사 어렵다"

국민의힘 민중기 조사해야·민주당 특검 흔들기 금감원 국감서 공방



여야는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 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다.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국 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

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건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삼부토

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사 촉구에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쟁거 불 부분이 있으면 쟁거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았다면 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진정화 기자

한전KDN-중앙대학교, 업무협약으로 AI와 에너지 융합연구 선도 모색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현장 경험과 대학의 R&D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AI 신사업 생태계 주도할 것



한전KDN(사장 박상형)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일 중앙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 선도 및 미래 핵심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ESG 경영 확산과 차세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

과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사에 이은 양 기관장의 인사발 교환, 협약서 서명과 협약 실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AI 융합연구 및 실증 사업 ▲탄소중립·ESG 협력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AI 융합연구 및 실증과 탄소중립·ESG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AI)-맞춤형 에너지 관리시

스템(xEMS), 분산전원 연계 가상(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자립형 캠퍼스 등을 공동 연구하고 스마트 탄소중립 관리 솔루션과 ESG 지표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 및 현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협력에 상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에너지ICT 관련 데이터 공유, 성과 발표회·워크숍·학술 세미나를 통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제고, 산학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 등 기본 협약과 별도의 추가적인 상호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산학협력을 틀을 넘어 AI와 에너지의 융합을 통한 국가적 탄소중립과 ESG혁신 선도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한전KDN의 클라우드-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RE100 실현 솔루션과 중앙대학교의 AI와 에너지

융합연구 선도 기술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의 미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전통과 명문을 가진 학문의 전당 중앙대학교의 첨단 R&D 역량에 한전KDN의 현장 경험이 녹아들어 만들어 낼 강력한 시너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플랫폼 중심의 에너지 디지털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한전KDN의 도약에 중앙대학교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더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ESG 혁신 선도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학협력의 모범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지속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무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세부 실행 방안 강구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농어촌공사 정책정보, 이제 '농어촌드림'으로 한 번에

농업정책, 사업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월 2회 발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정책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정책 소통 채널 '농어촌드림'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드림'은 분산돼 전달되던 공사의 정책·사업 정보를 통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요 정책 정보 ▲제도 변경 사항 ▲사업 신청 일정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월 2회 발송해 농업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



인할 수 있게 했다.

구독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을 검색하거나 포스터 QR코드(큐알코드)를 통해 접속해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공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장은 "정책과 사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분에게 정보가 제때 닿도록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하림, '정통 일식 커리퐁닭'·'정통 사천식 마파퐁닭'

냄비에 닭고기와 소스, 물만 넣고 끓이면 완성... 취향에 맞게 밥·우동사리·빵 곁들여도 좋아



돼지고기 다짐육 대신 잘게 다진 닭고기를 함께 사용해 다채로운 식감을 살렸으며, 따끈한 밥 위에 올리면 중독성 있게 매콤한 덮밥으로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간편하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닭고기와 소스, 물을 약간 넣고 중약불에서 6~7분간 잘 저어가며 끓이면 손쉽게 완성된다.

하림 '정통 일식 커리퐁닭', '정통 사천식 마파퐁닭'은 10월 22일부터 GS더프레시 냉장 코너에서 만날 수 있으며, 그 외 전국 중소형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GS더프레시 임창섭 MD는 "고물가에 '집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밥이랑 잘 어울리면서도 해외에서 맛보던 색다른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통 일식 커리퐁닭', '정통 사천식 마파퐁닭'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림과 함께 신선한 닭고기에 다채로운 맛을 담은 간편 조리 제품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BK기업은행, '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전국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 모집... 11월 14일까지 접수

선발기업에 투·융자, 1:1 전담 멘토링 등 지원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1 전담 멘토링·컨설팅 ▲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제공 등 사업 고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은 기업의 단순 보육을 넘어 스펀지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혁신 기술과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하나은행, 「다이렉트 해외송금」서비스 '인도네시아'로 확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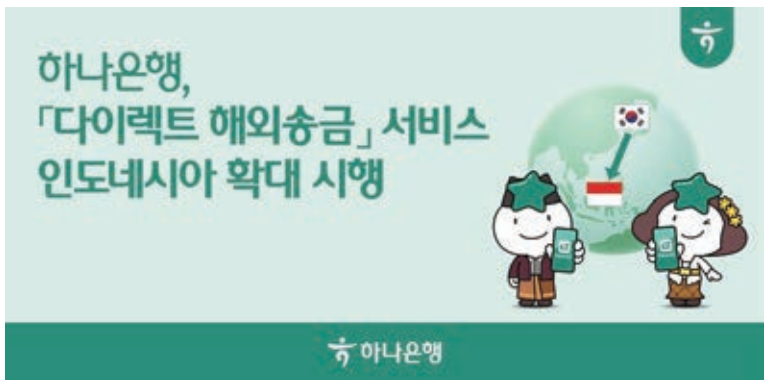
하나은행 해외송금전용 앱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의 128개 은행으로 다이렉트 송금 개시

언제, 어디서나 '하나 EZ' 앱을 통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송금 및 이체 진행상황 확인 가능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하나 EZ' 앱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가능 국가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



계되어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현지 128개 은행으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이체처럼 송금부터 수취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송금 전에 계좌의 유효성 검증은 물론 송금 후에는 이체

진행상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인도네시아 확대 시행을 기념해 내년 9월까지 환율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이벤트

기간 중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환율 우대 40%와 송금 수수료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취 은행의 수수료도 올해 연말까지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인도네시아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 손님의 금융거래 편의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

NH농협은행, 금융사기 예방 우수영업점 현장방문

올해만 5,143건, 약 830억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NH농협은행은 20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우수 영업점인 동평택지점을 현장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신 금융사기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동평택지점은 최근 개인사업 준비자금이라며 고객 현금출금을 요청한 고객의 이상거래 정황을 세심하게 살펴 대출사기 피해를 조기에 차단했다. 지점은 소비자보호부와 즉시 공유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특히 농협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한 「112신고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해 별도의 유선신고 없이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을 검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 금융소비자보호부본 이강영 부행장은 "현장에서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협은행은 앞으

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니터링센터 24시간 운영,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상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9월말 까지 총 5,14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약 831억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내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154회 수상하는 등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